

작품 제목

< 우리의 태도 >

1. 내용 기입

...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누구나 어릴 적 한 번쯤은 들어본 노래의 가사이다.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어주는 이름, 바로 친구이다.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 친구란 그 자체로 의지할 대상이자 전부이기도 하다.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학창 시절의 선택으로 좌우되며, 어떤 학창 시절을 보낼지는 교우관계에 의해 판가름 난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리고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이 부족한 글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줄이는데에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학교폭력’에서 학교를 빼면 그냥 ‘폭력’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자. 사실 학교폭력은 범죄와 그 본질이 같다. 누군가의 몸과 마음을 찢어발기는 엄연한 범죄이다. 법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범죄자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처벌이 강화되고 정책이 바뀌어도 학교폭력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오히려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잔인해질 뿐이다. 하지만 이를 핑계 삼아 친구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비록 뿌리째 뽑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충분히 피해자를 줄이고 도울 수는 있다.
예컨대 내 가족이 누군가에게 성희롱을 당하거나, 돈으로 협박

받거나, 뺨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라. 중심에 열불이 나지 않는가?
누군가에겐 쓰라린 현실이다. 그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눈물 흘릴 때,
비로소 학교폭력의 사무치는 역겨움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는 ‘관심’ 과 ‘공감’ 이다.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폭력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으나
먼저는 그 친구와 대화를 해보아야 한다. 비록 좋은 마음이었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주변에 알리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저 의지할 친구 한 명이 그 친구에겐 필요한 전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면, 자신이 선불리
나서서는 안되는 영역임을 빠르게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생님께 알리기, 경찰에 신고하기, 117에 전화하기 등 널리 알려진
안전한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지혜롭게 대처하자.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극도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단호하게 생각하자. 방관은 죄요, 도움을 주는 것은 친구의 당연한
도리임. 즉,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태도는 ‘지혜로운
용기’ 이다.

‘지혜로운 용기’ 라는 말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알아서 잘’ 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 본인이 선불리 나서서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때 키워드는 ‘피하다’ 이다. 학교폭력 가해자들과는 맞붙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영화처럼 직접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는 무모하고 비효과적이기에 안전하고 개방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을 ‘은근히’ 일삼는 무리들을 보고 있노라면
자꾸만 속에서 육하는 것이 올라오는데,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감정을 앞세워 그들에게 돌진하는 것은 아쉬운 판단이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자.

‘법대로 해’ 라는 드라마들의 단골 멘트처럼, 이를 갖고 갈아서 룰대로 대응하자.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세번째 태도는 ‘피함’ 과 ‘냉철함’ 이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태도는 아주 굵은 줄기에 해당한다. 세 가지 태도만으론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온전히 돕기에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관심’ 과 ‘공감’ , ‘지혜로운 용기’ 그리고 ‘피함’ 과 ‘냉철함’ 의 태도를 잘 갖춘다면, 이외의 세부적인 태도 또한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학교폭력은 모두가 함께 예방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마음을 열어서 상처 입은 친구들을 돕는 것은 자신의 학교생활 중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 학교’ 가 아닌가.

우리 학교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찬란하게 빛나는 학생의 시절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자. 태도를 바꿔 보자. 친구의 눈물을 닦아주자. 어느 순간 성장한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